

# 큰빛은혜교회

# 가정예배지

2025. 11. 19.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주님과 같이”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러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브릿지**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이, 주밖에 없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창세기 28장 10~22절 -----

다 같 이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단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말씀 나눔 ----- 벤엘의 하나님 ----- 인도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도피 여정 중 '벤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야곱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응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첫째,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 빗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해가 져서 잠자리를 찾을 때,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했던 그의 모습은 인생의 가장 낮고 외로운 자리를 상징합니다.

본문 10~11절 10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복될 통로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 자손, 그리고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2~13절 12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죄인 야곱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주신 약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 합니다.

###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경외와 고백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합니다. 이는 공포(Fear)가 아닌 경외심(Reverence)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특정 장소(아버지 이삭의 집이나 성전)가 아닌, 광야의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벧엘)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평범한 돌무더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기념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본래 '루스'였으나, 그는 그곳을 '벧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나만의 벧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것을 깨달았던 장소, 이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평생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 힘이 될 것입니다.

### 셋째, 언약에 대한 신앙의 응답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혜)을 받은 야곱은 이에 대해 응답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1~22절 21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1) 21절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 (2) 22절에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 (3) 22절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헌신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선행)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응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이 잘 이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1. 아곱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잡아야 할 때,  
지금 내 삶에서 다시 불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2. 아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3. 아곱이 받은 은혜에 서원으로 응답했듯이,  
나는 이번 주 어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나요?

1.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2.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3.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도록
4.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5.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곱처럼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받은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벤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